

올림픽을 위한 환경조성

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준비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단순히 운동경기를 치루기 위한 경기장 시설비용뿐만 아니라 개최하는 도시의 모습을 단장하는데 드는 비용의 규모도 엄청난 규모라고 한다.

사실 외국 손님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데 집안 청소를 말끔하게 해놓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인 때문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도시의 모습을 잘 꾸며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올림픽이 단순히 몸으로 배우는 운동경기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연유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국민정신적인 차원에서 혹은 과학적, 경제적인 차원에서 개최국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음을 종래 올림픽을 통해 능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올림픽을 앞둔 준비 사항에는 훌륭한 경기장시설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바른 공중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신적 공사(?)에서부터 도시환경, 국민건강에 까지 폭넓은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뛰어난 경기장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 주변 환경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시민이 도사리고 있다면 성(成)보다는 패(敗)가 따르는 결과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 固有美 살린 도시환경 조성

그렇다면 과연 올림픽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환경조성은 어떠해야하며 이에 따른 도시개발은 어느 선까지가 적당한 것인가……

88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우리의 형편과 앞으로 남아있는 5~6년간의 형편에 따라 적정규모에 맞춰 서울과 그 밖에 도시의 면모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 주어진 선이고 이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크게 생각하면 아예 낡고 보기 흉한 건물을 쓸어버리고 새로 세운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불과 15일~20일가량 치루는 올림픽을 위해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안되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형편 안에서 가로의 간판을 정리한다거나, 골목안팎을 말끔하게 치운다거나 혹은 낡은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휴지통을 새로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등등 사소한 주변환경부터 정연하게 바로 잡는 것도 도시환경을 새롭게 하는 첫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이고 외적인 치장만으로는 세계적 잔치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에는 부족하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폭넓은 수선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 大會 이후에 유용하게 이용토록 강구

서울 올림픽과 관계되는 인근 도시로는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등이 보조 경기장시설이용으로 올림픽권 안에 들게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도 올림픽을 위한 정형수술을 크든작든 안받을 수 없겠다.

문제는 분수에 넘치는 무턱대고 수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다 갖고있는 뜻있는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는데 원칙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서울과 위성도시들의 6년 후 올림픽을 위해 한국적 고유의 아름다움을 기조로한 도시정비의 기본 방향은 어떤 것인가——. 88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계자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녹지공간의 절대적확보를 꾀고 있다. 이 계획은 특히 단기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이것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건설중인 지하철공사가 하루빨리 원활하게 진행 완성되어야만 대중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2,3,4호선이 완공되는 84년이 기대된다.

세째는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기 위한 하수처리 시설의 확대와 하상정리의 필요성이다. 서울은 자연적 조건이 아름답기 때문에 한강을 잘 가꾸면 그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인다는 것으로 오염된 한강물과 고르지 못한 강폭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직적했다.

끝으로 도시건축의 미화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축적 미가 가미되어야 할 건물, 교량 등 시설이 수요충족만을 고려한 결과 미적 안목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견해를 밝히고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서 작품성과 생산성이 병행된 시설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파리의 계획적으로 조성된 높이의 건축물, 교량의 조형미 등이 조화된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고…….

이상의 네가지 기본방향은 계획의 근간으로 이와 부수된 여러가지 도시환경조성계획과 병행돼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의 예 참작해서 계획수립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도시의 면모를 크게 바꾸는 작업을 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의 칼러를 정착시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자칫 빛나가 무리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경우도 없지않겠지만 도시기능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시민생활의 능동화를 유도하

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 더 큰 뜻을 찾고 있다.

구체적인 외국의 예를 들어 올림픽에 대비한 도시개발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앞둔 서울 올림픽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여긴다.

지난 1964년 동경올림픽을 위해 일본은 인구 1천만명의 과대도시로서 도시기능이 저하하고 있던 동경을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기능 회복의 기회로 삼고 도시개조 및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력 추진키로 했다.

즉 대회경기에 사용될 시설을 비롯, 도로·교통·항만·상하수도 등의 도시시설의 건설정비, 청소 및 환경위생의 강화, 도시미화대책의 추진 등 광범위한 사업을 대회 관련사업으로 선정하고 국가지원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수도권정비사업예산이 1958년~1964년까지 7년간 2천4백63억엔에 이르렀으며 동경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약 1조엔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원의 출처는 국고부담이 25%, 동경시 부담 45%, 일반재원 30%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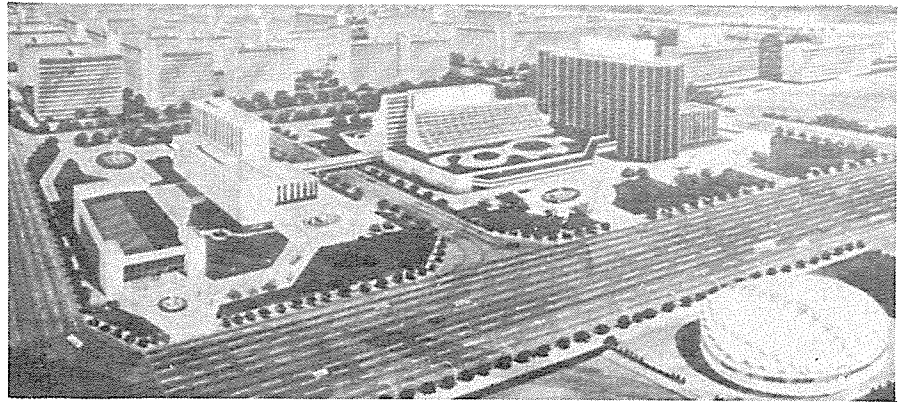
□ 올림픽은 도시기능 높이는 좋은 계기

이 재원을 가지고 경기장시설 건설정비와 도로교통시설, 고속철도건설, 환경정비사업 등을 했다.

경기장시설 건설정비사업으로는 駒沢都立공원 정비사업을 벌여 전문가로 하여금 전면 개조토록했다. 또 明治공원도 개수해서 올림픽에 사용토록 했다. 도로교통시설은 도로와 입체교차로를 건설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했고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해서 초특급(동경-대판간)을 탄생시켰다.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상하수도를 정비해서 급수능력과 배수능력을 크게 높였다. 결국 동경의 경우도 도시의 모습을 새로 바꾸는 대수술이 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셈이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문헨과 몬트리올을 올림픽대회도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림픽이 하나의 전환



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72년 문헨대회를 위한 도시개발의 근간은 올림픽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공원과 선수촌건설, 교통시설의 확장과 도심지 내 자동차통행규제(보행자전용 공간 설정)와 지하개발 등이었다.

따라서 올림픽경기장시설로는 대단지(240만평)를 확보하고 주경기장 외에 5개종목의 경기장을 설립, 그 밖에 선수촌, 기자촌, 방송센터 등을 건립했다. 특히 선수촌은 12만평에 3천호의 아파트와 1천8백호의 연립주택으로 꾸며 대회 후에는 일반에 분양토록 했고, 방송센터 건물은 현재 체육학교로 전용되고 있다.

교통수송 시설면에서는 올림픽경기장을 남북으로 가르는 순환도로 등 3개의 외곽 순환선을 신설했고, 경기장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과 대도시권 전철을 부설했다. 도심지 재개발은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보도를 만들고 지상은 개인승용차 통행을 제한했다. 특히 역사적인 건축물의 오손을 막고 도심의 공기를 맑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도시공간간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한편 몬트리올대회는 연방정부의 의견과 비판자들의 비난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치러진 대회였다.

그러나 도시개발은 다른 도시의 경우와 같이 경기시설, 교통시설, 도심지재개발과 지하활용으로 나누어 새 면모를 보여 줬다. 경기시설등에서는 주경기장시설과 기타 종목경기장을 한 지역내에 두고 특히 대회 이후에는 종합운동공원으로 활용토록 배려했다.

선수촌은 주경기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19층의 반피라밋형 아파트 4동 9백80호를 건설했으며 대회후에는 주민들에게 임대하고있다.

교통시설로는 주경기장부지의 동단과 서단에 지하철역을 위치시켜 도심지와 연결토록 건설했고 특히 동단역의 콩코스(주경기장의 지하 출입구와 접속시켜놓아 관객서비스에 노력했다.

도심재개발과 지하활용면에서는 긴 겨울과 눈이 많은 몬트리올의 기후조건을 감안해서 지하철건설시 도심의 광장이나 역, 호텔, 극장, 아파트 주변의 지하를 개발하여 상가나 주차장을 만들어 전천후로 도시공간을 활용토록 유도한것이 특징이다.

□ 전문가의 대거 참여 바람직

이상에서와 같이 올림픽이 한 거대한 도시를 새로 변모시켜 놓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 시간, 노력이 들고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불과 며칠간의 대회를 위해서 벌이는 대역사로서는 너무 엄청난 일이며 어디까지나 대회이후에 기존시설물을 아주 유용하게 전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려한 후 일에 착수하는것이 순서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따라서 관련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전문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훌륭한 대회 소화와 기념비적인 시설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도시문제 5월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간